

‘마음 속 세상’ 맘껏 표현해 보세요

승가원장애아동시설 계절학교 5일간 개최 그림 그리기·색종이 붙이기 등 놀이치료 진행



“선영아, 언니 하는 것 좀 봐.” 어떤 일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소녀가 뒤척임을 보인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빙글레 미소 짓는 것은 볼 수 있다. 선영이(15·가명)는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아동이다. 1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게 보통의 또래보다 훨씬 가느다르다. 언어로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봉사자 언니가 손을 흔들자 눈을 움직인다. 선영이의 반응에 봉사자 언니의 입가에도 어느새 웃음이 걸린다.

서울 안암동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욱)을 찾은 1월 22일, 시설이 온통 들쭉 들쭉한다. ‘겨울학교’ 때문이다.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이 아이들 있는 곳이니 언제나 분주하지만 겨울학교에서는 유난하다.

이번 겨울학교는 ‘우리들 세상’을 주제로 1월 21~25일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자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들 세상”이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시설 장애아동들 마음 속 세상을 가리키는 것일 터다. 아이들 72명 각각의 마음속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조금은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게 된다.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면 좋으련만, 아이들 중 태어난 중 장애아동이라 언어활동, 의사표현 등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감



그저 놀이라고? 장애아동들에게는 마음속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원장 동욱 스님(오른쪽 사진)도 아이들과 함께 감각놀이를 하고 있다.

각반을 끌어내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활동은 웃에 그림그리기, 색종이 붙이기, 포장재를 활용한 구르기 놀이, 패트병 속에 콩을 넣어 흔들어주기 등으로 진행됐다.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웃에 볼감을 찍어 그림을 그리거나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찍기놀이를 하고 색종이로 모자이크 놀이를 하며 작품 활동을 한다. 이른바 시설 내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그림도 곧잘 그리고 그럴싸한 작품도 만들어낸다.

이보다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아이들은 일명 ‘뽀뽀’라 불리는 포장재를 온몸을 이용해 터뜨림으로써 터지는 감각과 소리를 경험한다. 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봉사자들이 병 속에 콩을

넣어 흔들며 소리를 내주거나 고무찰흙을 손에 쥐어주고 함께 주무르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 일반인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활동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이는 놀이지 치료다. 이 아이들이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을까. 여러 사람들이 떠나며 한 번씩 스쳐가는 것도 이들에게는 고역일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어느 아이들처럼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토라지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을.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감각놀이이다.

이렇게 진행된 아이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생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예비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실습생들이다. 실습생 황수영(한양여대2)씨는

“세부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해 2주간이나 고민하며 준비단계를 거쳤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획부터 생활재활교사, 사회복지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20여명도 자원봉사로 활동했다. 미래 의사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장애아동들의 상황을 지켜본 것이다. 이들은 의사란 직업은 인간에 대한 마음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에 시설봉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음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봉사다. 의대생 봉사자 정현숙(24)씨는 “장애아동들이라 처음에는 많이 간직했고 안아주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만큼 장애아동은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히기 좋은 존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씨도, 함께 봉사한 사람들도 아이들이 장애·비장애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중증장애아동 봉사하러 가면 그저 씻기고, 밥 먹이고 이런 활동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들에게도 이런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까.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치료 쪽에도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아동들을 돌리던 시설 원장 동욱 스님은 “아이들에게서 감각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며 “장애아동들의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 시선에 맞춰 보는 노력을 사회 전체에서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은 겨울학교 ‘우리들 세상’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들의 작품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는 시설에서 2월 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02)921-6410

글·사진=김강진 기자



청각장애인지로 유명한 서울 광림사주지 해성에게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얼굴이 있다. 봉사자 방정희(47·사진)씨다. 늘 웃는 얼굴, 활발한 성격인 그는 해성 스님과 함께 서울 광림사에서 운영하는 연화복지원을 이끌고 있다. 스님이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하는 대로 지지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식. 광림사를 찾는 누구에게나 그는 든든한 지원군 인에 틀림없다.

“봉사는 그저 즐겁게 하면 돼요”

“스님 하시는 일 열심히 따라하는데, 뭐, 스님께서 큰 그림 그리시고 저를 가지를 맡고 있을 뿐입니다.”

15년 전, 처음부터 스님과 함께 해 온 세월을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 그러나 그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스님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사회복지대학원 수료까지 했을 정도라면, 스님 못지않게 수화를 하면서 연화복지원에서 수화강의까지 맡고 있다면 그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참 야무지게 봉사하는구나 싶다.

인터뷰 도중 청각장애인 순미(42·가명)씨가 방씨를 찾아왔다. 이유는 순미씨가 요즘 고등학생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다.

“가끔 스님에게 털어놓기 힘든 사안이나 같은 거, 청각장애인분들이 와서 하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제가 편하잖아요.”

방씨가 그렇다고 광림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4년 전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연화복지원에서 수화강의의 진행도 세극중 군법당

흥국연화사에 나가고 있다. 허름한 법당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는 그는 연합 포교사인 남편 임희광씨와 남편의 포교사 동기들까지 함께 법당을 지키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딱북이, 잡채 등 군인들이 좋아할만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20명이던 군인이 60명으로 늘어났으니 말이다.

“애들이 지나가면서 ‘아, 그 음식 잘하는 보살님 오늘 또 안 오신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분 좋죠.”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법당을 찾았을 뿐이었던 군인들이 제대할 때쯤에는 “저 이제 <반야심경> 읽 수 있어요”라고 말할 때, 방씨는 그야말로 뭉클하다.

여기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보니 광명보육원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만 그의 마음의 고향은 그래도 광림사다. 오랜 세월동안 청각장애인들을 보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했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요즘 방씨는 연화원 장애인들과 함께 꽃배달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전국 어디나 주문이 들어오면 예쁘게

꽃을 만들어 배달해주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후원에만 의존하지 한계가 있어 만든 사업이다.

“이 일은 사실 청각장애인들의 지원 대를 등 군인들이 좋아할만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20명이던 군인이 60명으로 늘어났으니 말이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쉬는 날은 많아야 한 달에 사나흘이다. 그래도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없다. 그저 즐겁단다.

“청각장애인들이 긍정적이고 밝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하는 일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언제까지든 계속 봉사할 하려는 마음뿐입니다. 다른 분들도 봉사를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제주불교전통문화원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수미정사 인천불교대학 중연 스님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 무료노인요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수미정사 인천불교대학 회주 중연 스님은 1월 25일 제주불교전통문화원 설립부지 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인 ‘연화마을’ 기공식을 가

졌다. 연화마을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연면적 300평의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번 시설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시설이 자체시설이자 무료노인요양시설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연 스님은 “조사한 바에 따라

면 제주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 여명 정도 되는데 이중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껴 자체시설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서류상으로는 자녀 등의 보호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무의탁 타매·중증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자체시설을 짓는 이유는 불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한편 수미정사 인천불교대학에서는 3월 2일 서울 양평동에 포교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연건평 200평에 3층 건물로 1층에는 삼존불을 모시고, 2층은 관음전, 3층은 문화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원에서는 불자들의 간화선 및 불교문화교육 등에 힘쓰게 된다. (032)427-8400 김강진 기자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보우승가대학)

본교는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사찰운영과 신도포교에 꼭 필요한 실체적 이론과 기초의식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2년제 교육기관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종단승려의 추천에 의하여 누구나 입학가능하며 기초에서부터 전문으로 완성해드리는 보우승가대학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입학안내
 - ◆모집학과 및 정원
 - 법패학과 30명 / · 불교문화예술학과 30명 / · 전통강원반 40명 / · 교임교육과 30명
 - ◆응모자격 : 신입생 : 승려 및 재가자
 - 편입생 : 지원학과에 맞는 실력을 갖춘 재(2학년으로 편입가능)
 - 전통강원반 : 일반불교양대학 이수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 이수자
 - 교임교육과 : 희망자
 -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소 : 본교 교학처
 - 기간 : 2월 1일 ~ 2월 15일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 에서 다운 받거나 팩스 747-9290로 제출)
 - 2) 주민등록초본 1부
 - 3) 반명함판 사진 3매
 - 4) 전 형료 5만원
2. 입학전형일 :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3. 합격자발표 : 2008년 2월 23일(토)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게재
4. 교과목

학 과	목 표	교 과 목
법패학과	의식의 기초인 목탁 잡는 법 에서부터 49재의식까지 봉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의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기초불교교리, 상주권공, 호적
불교문화 예술학과	불교교리 및 법당관리, 사찰운영에 꼭 필요한 모든장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함	기초불교교리, 재설비 (도량장엄, 교임새, 지화, 서예등), 생활역학
전통강원반	선암사 강주를 역임하신 운법스님께서 경전을 전통 강원식으로 집중 교육하는 전문과과정임	사미, 사집과 : 처문, 도서, 선요, 서장, 절요 사 고 과 :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교임교육과	6개월 과정으로 교임 또는 승려의 권속이나 신도회간부, 사찰운영의 초보자들에게 승려를 보좌하고 준 성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위상을 정립토록 교육함	기초불교교리, 불교의식, 생활역학, 사찰경영학, 재설비(도량장엄, 지화, 교임새, 금은전, 습의학, 다도, 꽃꽂이, 참선실수

연락처 : 02-763-5213 팩스 : 02-747-9290